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성산일출봉(거대한 성의 모습(城山)과 해 뜨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더해짐)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4월 11일(제116호)

발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소 03186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의 02-2170-6092

편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지방시대 매거진

Jeju 제주특별자치도

Vol. 116

2024. 04.



CONTENTS

시도지사 칼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특별자치 선도 도시 제주가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역점과제

- ▶ 제주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제주,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추진
- ▶ 돌봄 걱정없는 제주, 「제주가치 통합돌봄」

제주 주요정보

성산일출봉 | 사려니숲길 | 월정리 해변 | 천지연폭포
주상절리대 | 함덕해수욕장 | 제주 봄 숨은 별빛 소풍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사례

- ▶ 제주시 갈등해결 우수사례
- ▶ 서귀포시 정책 우수사례

의회소식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수상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직원·부서 간 이색 소통법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제주특별자치도 ㈜모노리스 김종석 대표

정책포커스

- ▶ 늘봄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 ▶ 지역소멸과 여성청년 유출, 막아야하는 것인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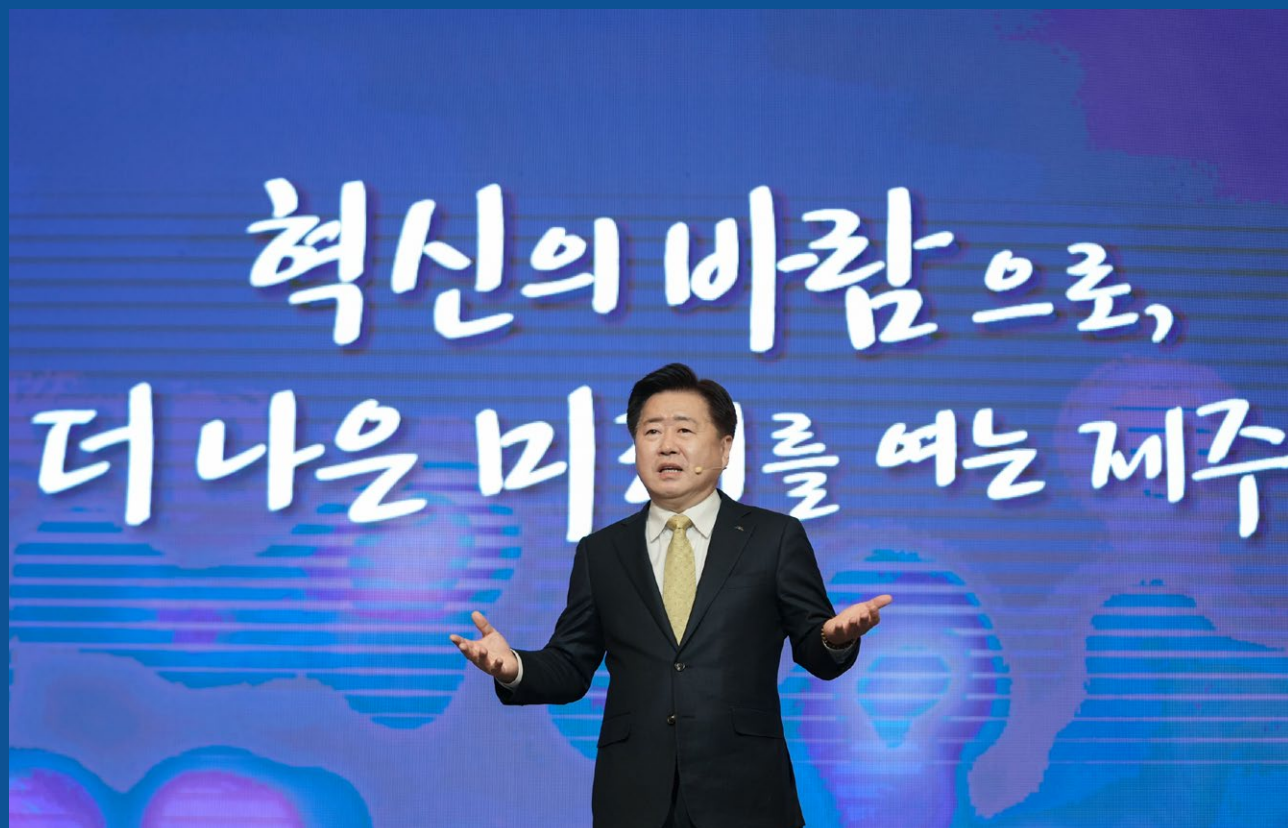




시도지사 칼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특별자치 선도 도시 제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칼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특별자치 선도 도시 제주가 앞장서겠습니다”

특별자치의 망령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제주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특별자치 선도 도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특별자치제도를 실현한 제주가 그동안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모두 발휘해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실현과 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시스템으로 운영됐다. 행정의 집중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정책은 지방소멸 위기와 저출생,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바꾸며 지방자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책임 아래 창의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 제대로 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또한, 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정부는 책임감 있게 정책을 실현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조화로울 때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확립할 수 있다.



제주의 특별자치 성과는 지방시대 실현의 큰 자산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선도적인 특별자치 성과를 보여준 제주는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지방시대 성공의 가장 큰 자산이다. 제주는 이미 2006년부터 고도화되고, 선도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 온 특별자치도다. 지난 18년간 제도개선 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정부와 끈질기게 협의해 왔다. 그 결과, 7차례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의 제·개정을 통해 4,741건의 정부 권한을 이양받았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에 새로운 도약과 기회를 안겼다.

양적 성장으로 보면, 인구는 2006년 56만 명에서 2023년 70만 명으로 1.2배 증가했고, 예산 규모는 2006년 2조 5천억 원에서



2024년 7조 2천억 원 규모로 2.9배나 성장했다. 제도적으로는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가 도입됐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됐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제학교 학생들이 예일대와 프린스턴대, 스탠포드대, 코넬대 등 세계 명문대로 진학하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교육산업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제주만의 특례를 마련해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보전 지역을 지정하고 있고,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자체 운영하고 있다. 1차 산업과 관광,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권한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18년 동안 이어진 「제주특별법」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이어졌고, 강원과 전북에서 새로운 특별자치도 출범의 성과로 나타났다. 제주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분권 모델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앞당길 경험과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도민 정부를 구현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앞으로 제주는 도민 주권 강화를 넘어 도민 스스로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민 정부 구현을 향해 나아갈 계획이다. 그 핵심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18년간 광역 단일 지자체로 지냈다. 행정의 효율화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행정 권한이 도에 집중되면서 주민 참여와 민주성 약화 등 도민 불편도 발생하게 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도민경청회(48회 · 3,905명),

여론조사(4회 · 5,400명),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4회 · 300명) 등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시 행정구역'을 선정하였다. 제주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타 시도의 시·군 과도 다른 새로운 행정 체제 모델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조정하고,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도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화된 시대와 여건에 맞는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올해 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춰 책임행정을 통한 도민 정부 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강화된 새로운 행정체제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방향기가 될 것이다.



□ 행정체제 개편(안) 비교

현행 : 2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개편안 : 3개 기초자치단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 (행정시) 법인격 없는 하부행정기관	* 인구, 세수, 경제기반(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이 비슷한 3개 기초자치단체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으로 분권 모델 선도

또한, 제주는 4개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상생협력 체계를 가동해 도민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까지 4개 특별자치시·도 지자체장이 모여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출범했다. 제주는 초대 대표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도적 분권 모델과 지역발전 모델을 완성하는데 중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제주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해 중앙위원과 정책 연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정부 정책과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책토론회와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민간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발전의 토대를 쌓아가겠다는 구상이다.



포괄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제주는 최근, 혁신적인 지방자치 선도 모델을 정부에 제시했다. 포괄적 이양 방식을 적용해 「제주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과정은 기록하지 않았다. 제도 개선에 걸린 시간은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4년 가까이 됐다. 2023년 6월 국회를 통과한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걸린 시간은 무려 3년 9개월이다. 행정 내부의 피로도가 상당했고, 제도 개선이 더딘 탓에 도민이 정책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특히 기존의 부분적, 단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는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제주에 부여하자'던 당초 특별자치도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포괄적, 일괄적 이양을 통한 제도개선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다.

제주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포괄이양 방식의 특별법 개정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완결형 제도가 될 것이다. 제주는 법제 전문가와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도민 삶에 긍정적 영향이 큰 사무를 중심으로 60여 개 법률 단위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도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의 포괄이양 방식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선도 모델을 조기에 구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제주는 중앙집권적 사고에 끊임없이 도전해 왔던 지역이다. '지역 형평성에 위배된다', '역량이 되느냐', '재정은 있느냐' 등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 기능을 부정하는 논리에 맞서왔다. 앞으로도 제주는 특별자치의 만형으로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여는 선도 역할을 이어가겠다. 특별자치시·도는 물론, 모든 지방정부와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분권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2024년 역점과제

1. 제주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2.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제주,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추진
3. 돌봄 걱정없는 제주, 「제주가치 통합돌봄」



1. 제주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제주는 2023년 2월 1일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주인공은 우주기업임을 착안해 ‘민간우주산업 육성 혁신 거점’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5대 가치 사슬을 제시해, 산업육성의 틀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한 15대 전략과제를 마련했다.



▶ 대한민국 민간우주경제의 혁신 거점, 제주

제주는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발사 최적지이자 전파청정지역이다. 스타트업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경면 용수리에서 3차례나 민간과학로켓(BW 0.1) 발사에 성공하면서, 제주에서의 발사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2023년 12월 4일 중문해수욕장 해상에서 국내 최초 순수 민간기술로 만든 SAR위성을 발사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위성과 발사체기술을 연계한 ‘첫 민간 원팀’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 해상 민간위성 발사 성공 >

▶ 우주기업과의 협력 강화

제주는 2023년 5월 8일 <제주 스페이스 데이>를 열어 제주에서 활동 중인 우주 스타트업 4곳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컨텍, 아이웍스, SWS)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주는 협약을 통해 업무협력 및 투자유치, 본사 이전 등의 비전을 제시했고, 스타트업들은 해당 비전에 공감했다.



<스페이스데이 개최, 업무협약(23.5.)>



<도-한화시스템 우주산업 육성 업무협약(23.7.)>

이어 제주는 지난 2023년 7월 6일 한화시스템과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양자는 협약을 통해 위성 AT(위성 조립 및 성능 · 기능 시험) 시설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우주 제조업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꿈나무 육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화시스템이 약 1,000억 원을 들여 건립할 한화우주센터(위성AT)는 제주의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재 유입 · 육성의 거점 역할은 물론, 연관기업의 추가 유치를 통해 민간 우주생태계 구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제주,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추진

전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 심각성으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면서 무탄소 에너지인 수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2021년 11월에는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는 CF(탄소없는 섬) 2030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인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을 지난 2022년 9월 발표했다. 이 계획은 풍력 및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그린수소 생산단지를 구축·저장하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 복합발전소 등 생활영역과 산업에 그린수소를 보급·활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주는 지금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발전비율 19.2%, 22년 12월 기준)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생산 최적지로 부각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 또한 전국 최고(3만 9천여 대, 23년 12월 기준)로 수소 모빌리티 확대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 그린수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

이에 따라 제주는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에너지자립과 탄소중립에 따른 그린수소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고자 2023년 1월 「제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2017년 국내 최초 '260kW급 수전해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첫발을 떼고, 2023년에는 '3.3MW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통해 1일 600kg의 그린수소를 생산·공급(수소버스)하여 전국 최초 그린수소 상용화(수소버스 개통)를 이뤄냈다. 또한, '12.5MW 그린수소 생산실증 기술 개발'과 '해양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실증사업에도 선정되어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30MW 청정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제주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그린수소 선도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듯 제주에서 본격적인 그린수소가 생산됨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소충전소(이동식, 고정식) 구축 사업을 제안·준비·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3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내외 50여 개 기관·기업들이 참여해 10여 개 세션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수소 산업 발전과 세계 1등 수소 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수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중심에 두고 정책과 산업, 협력 등을 모색했다. 올해에는 '지속가능한 청정수소, 혁신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계획」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은 제주가 그린수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린수소를 생산·이용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제주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수소버스 개통식('23.10)〉



〈3.3MW 그린수소 생산 시설〉

3. 돌봄 걱정없는 제주, 「제주가치 통합돌봄」

혼자 사는 직장인이 다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르신이 질병·사고 등으로 수술 후 퇴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어도 제주지역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주는 도민 누구나 일상부터 긴급상황까지,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가치 있는 돌봄을 제주가 같이 하다



〈제주가치통합돌봄 비전 선포식('23.10)〉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가구 현장방문('23.12)〉

「제주가치 통합돌봄」의 의미는 '가치 있는 돌봄을 제주가 같이 하다'다. 만약, 도민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에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우선 △기존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되 △자격 기준 등으로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돌봄공백에는 '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촘촘한 3중 돌봄안전망을 완성하게 된다. 또한 제주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읍·면·동에 통합돌봄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전국 어디서나 가족의 돌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는 작년 10월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1,193명이 이용하였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뿐 아니라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청·장년층도 이용이 가능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응급환자를 발견하거나 사망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2023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90.2%, '일상생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87.8% 등의 응답율을 얻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제주는 2025년 1월부터 기존 서비스를 8대 서비스(가사지원, 식사지원, 긴급돌봄, 건강의료, 주거편의, 방역방충, 일시보호, 이동지원)로 확대하고, 틈새돌봄 무상지원 기준도 완화하여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 주요정보

- 1. 성산일출봉
- 2. 사려니숲길
- 3. 월정리 해변
- 4. 천지연폭포
- 5. 주상절리대
- 6. 함덕해수욕장
- 7. 제주 봄 숨은 별빛 소풍



1.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은 제주도의 다른 오름들과는 달리 마그마가 물속에서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수성화산체다. 화산활동시 분출된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화산재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끈끈한 성질을 띄게 되었고, 이것이 층을 이루면서 쌓인 것이 성산일출봉이다. 정상에 오르면 너비가 8만여 평에 이르는 분화구를 볼 수 있는데, 그릇처럼 오뎝한 형태로 안에는 역세 등의 풀이 자라고 있다. 분화구 둘레에는 99개의 고만고만한 봉우리(암석)가 자리하고 있다. 이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고 해서 ‘성산(城山)’, 해가 뜨는 모습이 장관이라 하여 ‘일출봉(日出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성산일출봉은 지방기념물로 관리하다 2000년 7월 19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빼어난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7월 2일 UNESCO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UNESCO 세계지질 공원에 인증되었고, 2011년도 대한민국 자연생태관광 으뜸명소, 2012년 12월 한국관광 기네스 12선에도 선정되었다.



2. 사려니숲길

사려니숲길은 제주의 숨은 비경 31곳 중 하나로, 비자림로를 시작으로 물чат오름과 사려니 오름을 거쳐가는 삼나무가 우거진 숲길이다. 사려니오름까지 이어지는 숲길이기 때문에 사려니숲길이라고 불린다. 사려니숲길은 본래 숲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지 않아 트래킹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다. 지난 2002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v)이기도 하다. 사려니숲길을 걷다가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짝짝 뻗은 삼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 사이로 햇살이 비춘다. 여름에는 제아무리 무더운 날에도 숲길 사이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제주에서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싶다면 방문하기 좋은 곳이다.



3. 월정리 해변

제주도의 동쪽에 위치한 ‘월정리’는 ‘달이 머문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서정적인 풍경의 마을이다.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그 위에는 밝은 달이 비친다. 풍경화처럼 아름다운 월정리 해변을 방문한 여행객들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변의 경치를 만끽한다. 특히 수심이 얇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기도 좋다.

월정리의 아름다운 풍광이 여행객들 사이에서 점점 유명해질수록 월정리의 해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고, 그에 맞춰 다양한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등이 많이 들어서 있다. 몇몇 카페는 사람들이 바다를 보며 쉬어갈 수 있도록 의자를 두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 찍은 사진이 유명해지면서 하나의 포토 스팟이 되기도 했다. 월정리엔 카메라를 들고 제주도 여행의 추억을 담은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4. 천지연폭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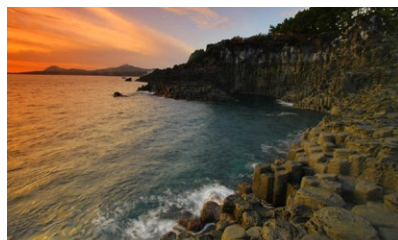
서귀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용천수가 많이 솟고, 지하 층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수성응회암이 널리 분포하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폭포가 많다. 그런 서귀포 폭포 중에서도 천지연 폭포는 규모나 경관 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머무는 곳이다. 천지연은 하늘과 땅이 만나 이루어진 연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폭포의 길이 22m, 그 아래 못의 깊이가 20m로, 가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연못이라 불릴만 한 규모다.



천지연 폭포 서남쪽에는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상록수와 난 종류가 울창하게 우거져 난대림을 이루고 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며, 현무암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모두 편안히 자연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이 숲에 자생하는 담팔수나무는 이곳이 그 북방 한계선으로써 천연기념물 163호로 지정되었고, 난대림 자체도 천연기념물 37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천지연 폭포는 오후 10시까지 야간개장을 하는데, 밤에 보는 폭포의 모습도 장관이다.

5. 주상절리대

주상절리는 현무암질 용암류에 나타나는 수직 절리를 말한다. 마치 예리한 조각 칼로 섬세하게 깎아낸 듯한 4~6각형 형태의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꺼운 용암이 화구로부터 흘러나와 급격히 식으면서 발생하는 수축 작용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마치 계단을 쌓은 듯 겹겹이 서 있는 육모꼴의 돌 기둥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 기둥에 부딪히는 파도 또한 마음을 뺏기는 볼거리인데, 심할 때는 높이 20m 이상 치솟는 ‘쇼’가 펼쳐지기도 해서 보는 이의 넋을 빼앗는다.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높이가 30~40m, 폭이 약 1km 정도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제주도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돼 있다.



6. 함덕해수욕장

제주도 수많은 해수욕장 중에서도, 바다 색이 가장 예쁜 3곳을 꼽는다면 단연 협재, 김녕, 그리고 함덕해수욕장이다. 물이 맑고 수심이 얕아서 가족 단위 피서지로도 좋다. 해수욕장 서쪽은 구름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피크닉하기 좋은 잔디밭, 밤에도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매력으로, 사계절 찾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여름에는 야간 개장을 해 제주의 푸른 밤을 바다에서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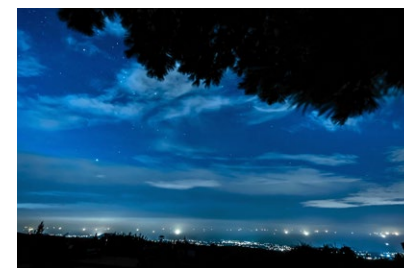
함덕해수욕장 옆 서우봉은 봄이 되면 노란 유채꽃으로 여름엔 초록빛으로 계절마다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서우봉에 오르면 함덕해수욕장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 날씨가 좋으면 한라산과 동쪽 오름들도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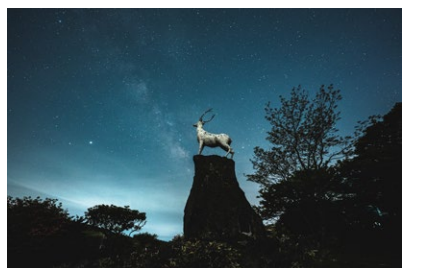
7. 제주 봄 숨은 별빛 소품

- 비밀 가득한 제주, 봄날의 숨은 소품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제주의 숨어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로 봄소품을 찾아가는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봄꽃들이 활짝 핀 낮에는 몰랐던 제주의 밤으로 소품을 떠나는 것도 좋다. 도심 속 야간축제를 즐긴 후 별들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자연과 어우러지는 비밀스런 풍경에서 수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 제주 곳곳 아름다운 별빛을 사진에 담아 새로운 제주를 느껴보자.



〈거린사슴전망대〉



〈1100고지〉

• 거린사슴전망대 : 서귀포시 1100로 791	• 별내린전망대 : 서귀포시 색달동 2938-1
• 1100고지 : 서귀포시 1100로 1555	• 섬지코지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 제주별빛누리공원 : 제주시 선돌목동길 60(아라동)	• 서귀포시 천문과학관 : 서귀포시 1100로 506-1(하원동)
• 도심속 야간축제 : 삼다공원야간콘서트 4.26~6.14(매주금 8회)	

〈자료출처 : 제주관광공사, visitjeju.net〉



제주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
비젯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사례

1. 제주시 갈등해결 우수사례 - 용담레포츠공원 국유지 관리 협약 추진
2. 서귀포시 정책 우수사례 -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1. 제주시 갈등해결 우수사례

- 용담레포츠공원 국유지 관리 협약 추진

▶ 용담레포츠공원



용담레포츠공원은 1980년대 공항소음피해가 있던 '다고네마을'이 있던 장소가 방치되어 슬럼화가 되면서 경관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1992년 9월 시범레포츠공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에서 국유지(19,873㎡) 무상사용승인을 받고 1993년 10월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시민들의 여가공간 및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 2011년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갈등 시작

무상사용승인 연장을 통해 공원을 지속 관리하던 중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토지 무상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제주시는 별도의 사용허가의 연장없이 무상으로 시설을 이용해 왔으며, 결국 무단점유로 인하여 7억 9,700만 원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 변상금 납부 이후 후속조치 마련의 어려움

변상금 부과와 함께 후속 조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매입에는 약 300억 원의 재원이 소모되기에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며, 이에 공원부지의 [무상귀속]을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관계자와 면담하고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담레포츠공원의 국유지 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건의를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 갈등 해결의 실마리 마련

2023년 7월 「국유재산법」에 수탁자에 범위에 대한 의문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주시는 국유지를 용도별로 나누고

상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주지방항공청에 전하였고 안전을 조정한 결과 2023년 12월 29일 국내 최초로 5년간 국유지 관리협약이 체결되었다. 해당 협약으로 제주시는 연간 약 1억 원의 사용료 감면 효과를 얻게 되었다. 감면되는 재원은 공원유지·관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국가-지자체간 새로운 갈등 해결방안 마련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가-지자체 간 국유지 갈등은 전국적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여전히 갈등이 지속적인 곳이 많다. 결과적으로 국가기관(제주지방항공청)과 지자체(제주시청)에서 해당 시설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 결과 무상사용을 위한 해법을 찾아냈다. 앞으로 제주의 사례가 국가-지자체 간 국유지 갈등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2. 서귀포시 정책 우수사례

- 서귀포시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 농가 직거래 플랫폼, 서귀포in정

서귀포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농가의 온라인 직거래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을 출범하였다. 온라인 직거래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판로개척과 마케팅 등 온라인 유통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 출범 4년 만에 매출 및 농가수취가 획기적 증가

출범 첫 해인 2021년 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출발한 서귀포in정은 출범 만 3년 만에 총 누적 매출액 194억 원을 달성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또한, 참여 농가의 수취가격이 일반 거래 대비 평균 60% 이상 획기적으로 상승했고, 참여 농가 수도 150개소에서 270개소로 급격히 늘어났다.



▶ 고품질 상품과 철저한 품질 관리가 성공 요인

서귀포in정의 성공 요인은 고품질 상품과 철저한 품질 관리에 있다.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귤류의 경우 온주밀감 12.5브릭스 이상, 만감류 13브릭스 이상을 충족하는 고품질 상품 생산 농가만 입점할 수 있다. 특히, 농가 수취가격 향상과 소득 증진을 위해 선과장 등 유통 사업자는 입점을 배제하고 개별 농가 중심으로 입점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자체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또한, 전담 품질 관리 요원을 통해 사전 품질검사, 입점 후 상시 모니터링 등 철저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3PL 통합물류시스템 도입, 서귀포in정의 터닝포인트

또 다른 성공 요인은 3PL통합물류시스템(제3자물류)의 도입이다. 서귀포시는 도서지역의 비싼 택배비, 긴 배송기간, 명절 기간 빠른 택배 마감과 같은 물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3PL통합물류시스템(제3자물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택배비가 약 40% 절감되었고,(5,500원 → 3,400원), 배송기간도 단축되었으며,(3일→1일), 택배마감기간도 연장되는(4일전→2일전)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서귀포in정이 급성장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가교, 서귀포in정

서귀포시는 올해 연매출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3PL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다품목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및 외부 채널과의 판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농가의 고품질 상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서귀포in정 홈페이지 www.sgpji.com



의회소식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수상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부서 간 이색 소통법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상, 개인부문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 수상

올해 제20회를 맞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2024.2.23.)에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였다.



그 결과,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가, 아동에 대한 인권 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큰 의미를 부여받아 선정되었다.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이후, 국회에서는 ‘노키즈존’에 대해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주제로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노키즈존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 개인부문 대상에 현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가 선정되었다. 이 조례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및 도민감사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들불축제 원탁회의 시민대표단 구성에서 지역별·성별·세대별 쏠림현상으로 도민 의사형성 과정에 대표성과 신뢰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행정의 민주성·균형성·형평성 확보 등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도민 의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정되었다. 앞으로 이 조례는 주민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별·성별·세대별 균형잡힌 도민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통해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실현, 세대별 형평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총 4명이 수상하였으며, 첫째 송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양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지역관광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관련 산업 파급효과 창출 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셋째, 하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마을 단위 여성리더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조성 등 마을 단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넷째,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을 위한 지원과 사전 모니터링 체계 등을 마련하여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앞당기는데 기여했다는 큰 의미가 있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총 2명이 수상하였으며, 먼저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을 주민들이 돌봄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돌보는 마을 공동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필요한 마을 공동돌봄 지원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경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인권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영유아의 복지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부문	조례명	의원명	응모결과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송창권 의원 발의)	제주도의회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	현길호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송영훈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양경호	최우수상
개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	하성용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한권	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김경미	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마을 공동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경심	우수상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부서 간 이색 소통법

진정한 소통의 장

변화를 입힌 ‘공감·소통의 날’의 처음은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 출생)’와의 대화였다. 김경학 의장과 밀레니얼 세대 직원 40여 명의 만남으로 꾸려진 이날 행사에서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등 현실적인 고민이 공유됐다.

참여 직원들은 “서로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만족감을 보이기도 했다.

김경학 의장은 “전 직원이 직접 소통하며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여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 문제 등에 대해 형식과 방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고 밝혔다.

소통 강화를 위한 시간은 이후에도 지속 개최됐다.

3월에는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지진발생시 대응·대처 요령,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실습 위주의 참여형 교육 실시, 4월에는 숲길 소통 탐방, 6월 성희롱 예방 교육, 8월 광복절 기념 뮤지컬 영화 ‘영웅’관람, 11월 제주대학교 연극동아리 공연 등으로 채워졌다. 올해 2월에도 (사)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김경신 주임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테라리움을 만드는 원예힐링 프로그램 진행하는가 하면 3월에는 ‘우리의 안전’이라는 주제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낭그늘 힐링 콘서트’선보여

‘공감·소통의 날’에 ‘낭그늘 힐링 콘서트’란 특별함이 더해졌다. 일상생활에 지쳐있는 의원 및 직원들에게 음악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낭그늘 힐링 콘서트’는 2023년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예술가를 초청해 공연을 펼치며 첫선을 보였다. 이어 송창권(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김창식(교육의원, 제주시 서부)·홍인숙(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한동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양홍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무대에 올라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으며, 도의회 동호회 및 직원들이 함께 무대를 만들어 뜻깊은 추억을 남기는 등 의원 및 직원 간의 소통 무대로 자리 잡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문화공연으로 바쁜 일상 속 마음은 비워내고, 여유는 채우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유일 ‘의원·직원 합창단’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일하게 의원과 직원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이 지난해 11월 열린‘공감·소통의 날’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의원 및 직원 20여 명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 창단은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적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출발했다. 11월 창단 무대를 가진 합창단은 12월 KCTV합창페스티벌에 참가해 화합의 울림을 선사한 데 이어 의회 송년 콘서트 무대에도 올라 많은 호응을 끌어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등 음악을 통한 상생의 하모니와 화합의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학 의장은 “다양한 음식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이뤄내듯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상생의 에너지로 조합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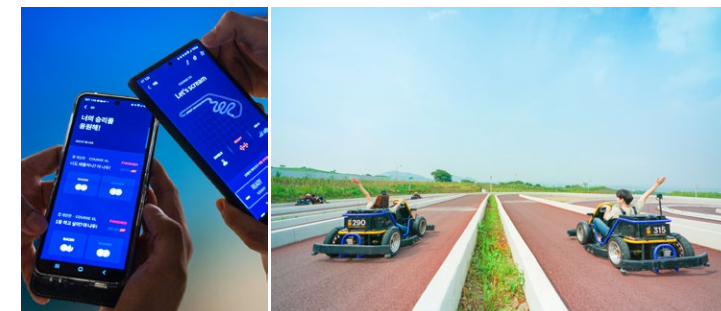
(주)모노리스 김종석 대표편
이진성(협의회 대학생 서포터즈 19기)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 자원으로 내외국인에게 사랑받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이다. 게다가 제주 곳곳에는 특색있는 테마파크와 놀이시설이 있어 색다르고 재미있는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이런 제주에 스포츠와 게임이 융합된 기술기반의 스페셜 게임파크(Spatial Game Park)를 개발·운영하며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스타트업 (주)모노리스의 김종석 공동대표를 만나보았다.

즐거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업 '주모노리스'

가족,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김종석 대표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인류에게 문명을 최초로 전달한 존재, 모노리스'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인에게 새로운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고자 2014년 10월 (주)모노리스를 설립하였다. 이 기업은 스마트 기술로 스포츠와 게임의 핵심 요소를 결합하여 사용자가 테마파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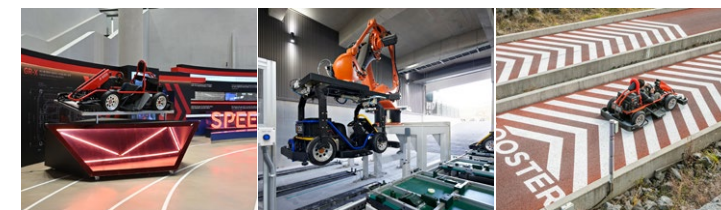


도전과 성장의 재미에 몰입하고, 현실 공간의 경험을 향후 가상공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차세대 테마파크 장르인 스페셜 게임파크(Spatial Game Park)를 창시하였다. 전통 테마파크 산업을 기술과 연결 중심의 스타트업 방식으로 혁신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스페셜 게임파크가 제주 애월에 위치한 '9.81파크 제주'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의 중점 액티비티는 중력 가속도($g=9.81m/s^2$)에 따라 내리막 언덕을 달리는 중력 레이싱이다. (주)모노리스는 자체 개발한 트랙, 각종 시설을 현실 공간에 테마파크의 형태로 구축하고, 게임파크 전체를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처럼 만들어 애플리케이션과 연결하였다.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즐긴 경험이 데이터화 되어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사용자간 연결되어 기록을 공유하고 승부를 겨룰 수 있으며, 게임처럼 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배틀방을 만들어 친구들과 대결을 즐길 수 있으며, 학교·단체간 대항전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실내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으며, 각종 축제와 이벤트, F&B, 음악과 영화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자 스포츠 문화시설이다.



스타트업의 매력적인 테스트 베드, 제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제주는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놀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9.81파크'만 보더라도 제주의 자연 언덕에서 협재 바다와 비양도를 바라보며 다운힐 레이싱을 즐기고 오름과 한라산을 바라보며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관광객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제주의 매력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김종석 대표는 '트릭아트뮤지엄' 박물관 사업을 하며 제주 관광산업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연간 1,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즐길거리와 볼거리의 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테마파크의 혁신이 필요하다.

게다가 70만 인구가 거주하는 섬, 제주는 변수요인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스타트업 사업의 성패를 시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제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객맞춤형 운영으로 성장해 온 ㈜모노리스

베타서비스를 종료하고 2020년 7월 9.81파크를 그랜드 오픈했는데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방문객이 적어 매우 어려웠지만 문을 닫지 않고 서비스를 유지했더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매년 빠른 속도로 고객이 늘어났다. 지금은 연 50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3년 내에 최대 수용인원인 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이색적인 풍경을 주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접근성이 낮아 재방문에는 장애로 작용한다.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사용자들이 경쟁하고, 도전과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서비스를 제공해 보기로 했다. 일정 자격을 충족하면 면허증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고 스포츠처럼 연중 시즌제를 도입하였으며 연말에는 챔피언십 대회를 운영하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매년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는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매년 수차례 방문해서 수십 회 탑승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방문한 고객은 38회를 방문해서 360회 넘는 레이싱을 하였다. 마니아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9.81파크가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9.81파크가 스포츠와 게임적인 요소를 적절히 조합해 구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력과 투명한 경영으로 투자유치를 이끈다

2014년 창업 초기에는 투자받기가 참 어려웠다. 거대 자금이 투입되는 테마파크를 스타트업이 만드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시장의 고정관념과 보수적인 시선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프로토타입 차량을 만들어 시범 운영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 프로토타입 차량에 적용해 개선해 나갔고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지를 선정하고 확보하는 과정,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 등 단계별 실행 절차와 시행착오도 투명하게 공유했다. 그랬더니 우리 팀의 실행력과 진정성, 전투력을 인정하는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2016년에 드디어 세 곳의 VC에서 시리즈A에 투자하였다. 그 후 시리즈B와 C에서도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다른 투자자까지 연결되며 ㈜모노리스에 든든한 힘이 되었다.

학습하고 진화하는 ㈜모노리스의 경쟁력

작년 관광 진흥 유공 정부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높은 테마파크에 벤처기업이 도전하여 한국의 IT로 새로운 테마파크를 개발하고 관광산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UAE 경제사절단으로 참가해 K-테마파크의 해외 확장을 시도한 점 등을 인정받은 것 같다.

㈜모노리스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웨어, 센서, 설비, 모바일 기술 등 광범위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였다는 것이다. 테마파크 설계부터 놀이기구 설계/제작, IT시스템 및 SW 개발, 디자인/브랜딩, 파크 운영/서비스까지 테마파크의 모든 요소를 자체 개발하고 수직 통합하였기에 이후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요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액티비티 경험을 진화·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런 점이 전통적인 테마파크와 차이이다. 기존의 테마파크는 하드웨어 중심 시설이고 개별 공급자들이 기능을 공급하는 구조라서 통합하기 어렵고 한번 구축한 시설과 고객 경험에 변화를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모노리스의 테마파크는 스포츠와 게임에 빠져든 이용자들이 게임파크에 방문할수록 더 많은 이용자 데이터가 수집되고 이를 학습하여 다음 게임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며, 더 많은 이용자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섬에서 물으로, 세계로 뿔어나가는 9.81파크

㈜모노리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 게임파크에서 제공하는 경험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여 세계인이 현실과 가상공간을 자유롭게 오고 가며 실력을 향상시키고,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친구들과 승부를 겨루며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버스 게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설립 9년을 지나고 있다. 과거를 돌아보면 연구개발에 5년을 쏟아부었고, 그 후 제주에 첫 번째 9.81파크를 안착하는데, 4년이 걸렸다. 지금은 2026년에 인천국제공항 앞에 게임성을 더욱 끌어올린 두 번째 9.81파크를 출시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더 새로운 경험으로 고객들을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을 하면 설레고 흥분되기도 한다.

올해는 9.81파크를 가맹 방식으로 확장해 볼 계획이다. 제주에서 창조한 새로운 테마파크를 국내외 주요 도시에 공급하며 전 세계 사용자들을 연결하겠다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해가 될 것 같다. ㈜모노리스를 2014년에 설립했는데 10년은 활주로를 달려야 비행기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 같다. 설립 시 가졌던 비전과 방향대로 차근차근 밀어가며, 한국이 개발한 테마파크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고,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기여시키는 회사가 되고 싶다.

〈지방시대 매거진〉구독자 여러분께

㈜모노리스 같은 지역 스타트업이 앞으로 많이 나오면 좋겠다. 지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과 서울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인프라가 많이 생겨 지금은 지역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좋은 스타트업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지역의 지원과 인프라가 더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회사가 생기면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과 자금, 기술이 모여들고 그것을 통해

참신한 서비스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순환은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도 역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도 차원에서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펀드와 제주 엑셀러레이터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모노리스도 창조경제혁신센터 1기 기업으로 제주도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

채용이 일어나고 관광객들이 모여들며 지역이 활성화될 수가 있기에 제주도의 스타트업이 많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정책포커스

늘봄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호서대학교 교수 전수진

지역소멸과 여성청년 유출, 막아야하는 것인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장민지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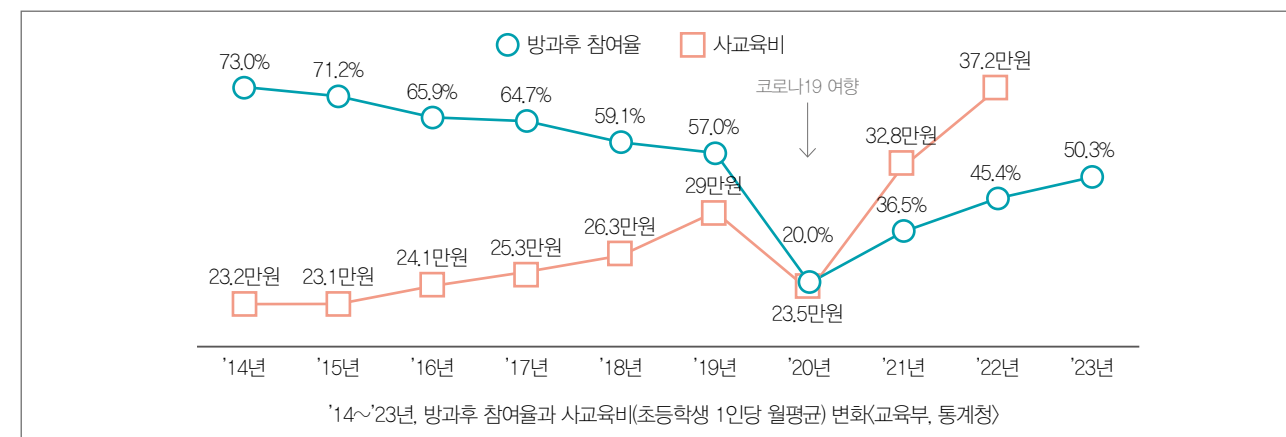
늘봄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전수진
호서대학교 교수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상과 학생 수 급감 문제에 대응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늘봄학교는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맞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중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늘봄학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후 저학년 시기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이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사교육비 증가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자녀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육체계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및 방과후 학교 시스템은 이러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돌봄 수요 대비 공간 및 재정 제약으로 인한 공급 부족, 프로그램의 질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다.



늘봄학교 정책은 지자체·공공기관·대학·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아침, 저녁늘봄, 지역공간 활용 등 수요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대한 행정업무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내에서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돌봄 수요학생에 대한 정보공유 및 지역자원 연계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 정책의 조기 시행으로 인한 인력, 프로그램, 공간의 부족과 초등학교에서의 돌봄



책임 과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품질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인력 및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교육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대학, 기업, 교육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또한, 돌봄센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체육공간,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마을 공동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공간의 문제, 돌봄 전담사 등의 처우 문제, 돌봄의 책임 주체의 문제, 아동 안전의 문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에 효과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각 주체들의 역할과 상호 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첫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의 교육 비전을 설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자원을 늘봄학교로 연결하고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준비해오고 있다.

둘째, 각 초등학교가 지역내 특성을 반영하여 늘봄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에서는 지역 내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늘봄학교 운영·지원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냈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은 늘봄학교 협력 운영협의체를 조직 및 운영하고, 공동 플랫폼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다. 실제로 정부는 늘봄학교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제공과 신청을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첫째, 지역의 늘봄학교 사업단 간의 네트워크를 주선하고 성공 요인을 공유하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학부모, 학생, 이와 관련된 시민들이 늘봄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지역 문화로 받아들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시스템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운영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늘봄학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족한 공간과 인력 확보를 위해 돌봄센터, 아파트내 시설, 체육시설, 종교시설,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시설 등의 지역 내 다양한 공간과 자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연계 돌봄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셋째, 효율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거점통합돌봄센터들이 여러 지역에서 구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호응과 반응이 매우 열광적이다. 이에 지자체는 이러한 지역내 돌봄교육 운영 기관에 예산 뿐 아니라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이니 만큼 세심한 관리와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③ 대학

첫째, 대학은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를 활용한 늘봄교육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서대학교, 이화여대, 경인교대 등은 문화예술, 창의과학, 사회정서, 체육, 기후환경 분야에서 교수진과 초등교육 전문가를 통해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둘째, 대학은 교육전문 기관으로써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 대학은 교육전문 기관으로써 분야별 대학생 및 졸업생 등의 대학내 인적자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과후 강사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도록 양성 및 재교육함으로써 강사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대학 내의 유휴공간이나 교육시설 등의 물리적 자원을 공유하고 제공함으로써 늘봄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이커스페이스, 첨단 강의실, 소극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지역에 공유하고 학생 교육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들이 교육청과 함께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체험캠프 및 학부모 특강을 여는 등의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④ 교육단체 및 마을공동체

첫째, 예술·체육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관련 협회 또는 단체들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강사를 늘봄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강사들은 학생들에게 창의력과 신체 활동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늘봄학교는 기존의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마을에서 성장한 돌봄 전담사 또는 강사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늘봄학교는 정기적인 연수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제공하여, 강사들이 최신 교육 방법론을 습득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인 돌봄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⑤ 기업

첫째, 기업은 늘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MBN은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러한 지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원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늘봄학교 사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진다면 ESG경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은 늘봄학교에 전문 인력이나 교육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자사의 전문가를 멘토로 파견하거나, 교육용 기자재와 자료를 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제 업계 전문가로부터 직접 배우고, 최신 기술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늘봄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전담 조직의 설치, 지역단위 운영체제의 구축, 그리고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늘봄학교는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늘봄학교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지역사회 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소멸과 여성청년 유출, 막아야하는 것인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장민지
경남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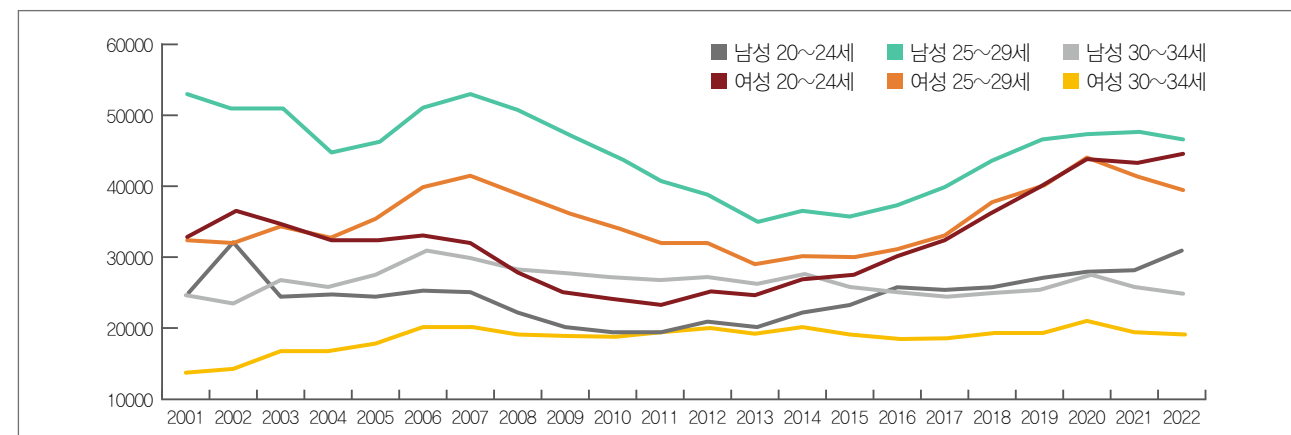
학문적인 글을 쓰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연구자의 주관이나 사적 경험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의 글쓰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문적 글쓰기는 없다. 학문적인 글쓰기는 부분적으로 연구자의 경험 조각들이 묻어있다. 그것은 연구대상에 의문을 갖고, 연구 문제를 구상하는 행위자체가 연구자의 경험과 정체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여성청년의 이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다른 아닌 나의 20~30대가 이주의 역사로 점철되어있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대학입학을 계기로 고향인 부산을 떠나 서울로 이주했다. 이주하는 동안 기숙사-원룸-오피스텔을 전전하며 서울에서 떠도는 삶을 살았다. 부산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열악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자본을 요구했지만, 나는 그야말로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서울 생활을 했다. 공부를 모두 마친 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다시 지역으로 이주했다. 취직을 위해 나주로 내려가 5년 동안 연구원 생활을 했고, 지금은 마산에서 일하고 있다. 나는 그야말로 스무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주되지 않은 삶, 즉 이주의 삶을 지속하고 있다.

내가 여성청년 주체의 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주를 감행하게 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여성청년들이 끊임없이 ‘서울-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동의 주체는 남성 편향적이었다. 이는 남성 주체가 공적 공간을 이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여성은 정착과 거주가 이루어지는 곳에 예측되는, 다시 말해 여성은 주체적 이주라는 행위에 있어 배제되어있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처럼 이동의 주체로 가시화되지 못했던 20, 30대 젊은 여성들은 꾸준히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시사인>에서 기획기사로 게재되었던 <청년인구 집종의 핵심 키워드, 20대 여성의 상경>을 살펴보면 인구이동 데이터에서 20~24세의 여성의 서울 이주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연령대별 서울로 이주하는 1인 이동 변화(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MDS 국내인구이동통계(1인 이동(세대주/세대원 전체) 기준)
출처 : 김동인(2023.11.15), <청년인구 집종의 핵심 키워드, 20대 여성의 상경>,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41>

인구이동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10년동안 20대 초반 인구는 20만 명이나 줄었으나, 서울로 이주하는 20~24세 1인 가구의 수는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중 20대 여성 전반의 서울 이주가 2015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복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청년의 이주 역사는 사회구조적이다. 그들의 이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 놓여있고,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이들의 이주를 ‘추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 이동하는 여성청년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비가시화되었던 것은 여성의 이주자체가 결혼제도와 결합하여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성청년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 아래에서 독립하지 못하는 주체로 존재하고, 독립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 또 다른 가족제도 안으로 예측되어야 하는 ‘가족 공간 내’의 여성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잦았다. 특히 여성의 나이들이 이러한 가족제도 안에서 서사화되는 것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독립할 수 없거나 독립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한국 사회는 기존과 다른 여성청년의 이미지를 생산해냈다. 현재의 청년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정서적 구조는 90년대라는 중요한 결절점을 거쳐서 형성되었다. 흔히들 90년대를 ‘문화의 시대’로 부른다. 민중 문화로 대표되는 80년대가 민주화 가치에 따른 정치적 이념의 시대였다면, 90년대는 대중문화가 꽃을 피우면서 대중의 주체성과 능동성 그리고 대중문화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기였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사회변동을 설명하기 위한 문화적 담론들을 생산해냈다. 이러한 담론들은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대중의 등장과 주체성 부여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루면서 인터넷과 영상 미디어의 등장을 부각시켰다. 특히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면서 가정에서 시청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PC 통신의 보급으로 인하여 온라인 문화가 형성되었다.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로 둘러싸인 채 성장해온 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세대의 탄생도 이 시기에 일어났다.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은 물리적 거리에 대한 공포감을 삽시간에 줄여버리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미디어를 통해 가상적 이동을 경험한 경우, 물리적 이동 또한 좀 더 쉬워진다는 것이다. 나 또한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서울의 정경에 매료되었고, 서울로의 이주를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미디어는 ‘서울’을 주로 재현했다. 레거시 미디어로 일컫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모든 배경은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 서울을 재현한다. 미디어는 우리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대다수의 독립을 꿈꾸던 많은 여성청년 주체들이 서울로의 이주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갔다.



여성들은 지역에 비해 서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사실 여성과 남성 모두 서울에서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겠으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성별보다는 '자기계발'에 더욱 중점적인 가치를 둔다. 즉, 젊은 세대들의 가치를 높게 사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재현하는 수도권은 여성주체들에게 성별과 무관한 '이주 가능성'을 제시하고, 경제, 교육활동 등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나 인구유출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지역도시에서 겪는 가부장적인 시선과 가족중심주의적인 규범들은 여성청년들에게 고향과 지역도시를 탈주하고 싶은 욕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20대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4차 산업에 집중되어있다. 4차 산업 중에서도 콘텐츠 산업과 미디어, 디자인, IT 서비스 관련 직종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 일자리는 특히 지역에서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지역 여성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도권으로 진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이주한 여성청년들이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에는 이주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종사하는 다수의 콘텐츠 산업이 20, 30대 여성들을 노동자이자, 동시에 소비자로 호명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그야말로 지역 여성청년들은 이주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여성은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진입'을 열망하는가. 이는 지역도시가 인구소멸과 인구유출의 원인을 '여성청년'에서 찾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동하는 여성청년 주체들을 주목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인구감소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이것 또한 여성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인 '가부장적 감시', 혹은 '가족 중심주의'로의 회귀로 느껴질 수 있다. 여성청년은 주체적인 욕망을

갖고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이주를 감행하는데 정부나 사회는 이런 여성의 주체적인 이주를 '문제화'한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청년들은 더욱더 탈지역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지역이 자신의 주체적인 삶의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여성들에게 '독립적인 공간과 장소'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지역에서 제공되는 여성청년 일자리는 대체적으로 협소한 편이다.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쓰는 분야는 남성중심적인 경향을 보인다. 예를 경상남도에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내뱉던 핵심전략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는 방산, 우주항공, 조선, 나노 등이다. 이러한 영역은 현재까지 남성들이 주로 직무를 담당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별분업은 사라져야 하는 문제이지만, 코앞까지 다가온 지역소멸과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에는 장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계획과 해결방안 또한 내어 놓아야한다.

지역은 이러한 여성청년 이주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한다. 그들이 왜 지역을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다시 지역으로 회귀하지 않는지, 과연 지역은 그들을 노동하는 주체로 상정하고 있는지도 고민할 수 있어야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주의 직접적인 원인,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지역소멸의 답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미디어에서의 '서울-수도권 중심' 재현도 고민해볼만한 지점이다. 현재의 청년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콘텐츠와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쏟는다.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너무나도 서울중심적이다. 모든 것들이 서울에서 일어나고 사그라진다. 보이는 것이 서울뿐이라면 꿈꿀 수 있는 공간 또한 서울뿐일 것이다. 더 많은 드라마의 배경이, 영화의 소재지가, 콘텐츠 안에서의 특별하지 않고 일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재현할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 삶을 정착하기 위해 바라보는 공간이 지역이 될 수 있다.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요 법률 및 조례 등 입법 사례와 시·군·구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시대 정신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 홍보한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4월호는 ‘제주특별자치도’ 편으로 제작되었다.

『시·도지사 칼럼』은 오영훈 지사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4년 역점과제』로는 제주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제주,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추진, 돌봄 걱정 없는 제주, 『제주가지 통합돌봄』에 대한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제주 우수사례』에서는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담레포츠 공원 국유지 관리 협약을 추진한 제주시의 갈등해결 사례와 서귀포시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소식』으로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수상한 조례와 제주도의회만의 이색 소통법을 소개한다.

『글로벌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제주에 스포츠와 게임이 융합된 기술기반의 스페셜 게임파크를 개발 운영하며 제주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스타트업 ㈜모노리스의 김종석 대표를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늘봄학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소멸과 여성청년 유출, 막아야 하는 것인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4년 5월호는 ‘경상남도’ 편으로 제작된다.

지속가능 "지방정부" 실현

지방외교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지방자치분권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지역균형발전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